

##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세계시민의식 형성 효과

신 인 순 (Shin, In-soon) \*

(E-mail : iss shin@ssc.ac.kr)

김 옥 순 (Kim, Ok-soon)\*\*

(E-mail : okskim@suwon.ac.kr)

논문접수일 : 2012년 10월 1일

논문심사일 : 2012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1월 17일

\* 학위취득대학 : 가톨릭대학교  
현직: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학위취득대학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현직: 수원대학교 교양교직과 교수

##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세계시민의식 형성 효과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참여 집단과 일반 집단을 비교하여 세계시민의식 형성 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2 유니세프 지구촌 몽골캠프 참가 청소년 80명과 일반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관,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세계지향성 등 5개 영역의 세계시민의식을 비교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밝혀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시민의식의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양성에 대한 가치관 영역에서만 여자 청소년이 높은 세계시민의식을 나타내었다. 둘째, 교급별로 세계시민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세계지향성 등 2개 영역에서만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높은 세계시민의식을 나타내었다. 셋째, 외국에 가본 경험에 따른 세계시민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양성에 대한 가치관,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세계지향성 등 3개 영역에서 외국에 가본 청소년이 높은 세계시민의식을 나타내었고, 외국에서 1년 이상 살아본 경험에 따른 세계시민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영역에서만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높은 세계시민의식을 나타내었다.

넷째, 세계시민의식 캠프 참가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관,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세계지향성

등 5개 영역 전체에서 캠프 참가 청소년들이 높은 세계시민의식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국제교류활동이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으므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주제어 ] 국제교류, 세계시민의식, 다양성

## I.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영토와 인종, 문화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구분된 지역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개념아래 전 지구상의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전 지구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가는 현상에 대해 우리는 전지구화(Globalization) 혹은 세계화 현상이라 명명하면서, 국가 간 혹은 지역 간에 발생하고 있는 긴밀한 상호관련성과 문제점들에 대해 각 영역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혹은 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세계화의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으며, 이들 방안들은 상당부분 미래사회를 위한 청소년들의 역량에 대한 연구와 역량강화 방안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근 들어 세계화시대의 청소년 역량으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세계시민의식이다. 세계시민의식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지구촌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역량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은 이러한 시도 중의 하나로 과거에 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에서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여타의 사회교육 기관들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은 고등학교 이상의 연령층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초등학교 연령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활동 중 사회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유니세프에서 진행하는 ‘지구촌 몽골 캠프’와 아동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를 향한 우리들의 꿈’, 그리고 굿네이버스와 월드비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이 있다. 초등학교 연령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은 주로 국내에서 아동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인의 근접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 때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교류활동 중 유니세프에서 실시된 ‘지구촌 몽골 캠프’ 참가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을 비교하여 현재 국내활동으로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는 아동 대상의 세계시민의식 교육을 국제교류활동으로 확장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그동안 활발히 전개되어 오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 세계시민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발전적인 국제교류활동을 위한 기존 프로그램의 평가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에 또 다른 목적을 두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평가를 통해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한다.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보다 발전된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발전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II. 세계시민의식과 국제교류활동

### 1. 세계화와 세계시민교육 논쟁

프리드만(T. L. Friedman 2007)은 그의 저서를 통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의 분업과 상호의존성을 글로벌 비즈니스 아웃소싱 현상에 입각하여 분석하면서 세계화의 현상은 문화와 범죄, 금융 등 현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프리드만(Friedman)의 예측은 현재 상당히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과 150여 년 전 산업사회로의 사회구조 변동을 목격하며 뒤르켐(Durkheim 1997)이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아노미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사회적 분업에 따른 구조적 연대에서 찾았듯이 이제 세계화라는 현상 앞에서 세계는 세계적 분업을 통한 구조적 연대에서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야만 하는 전 지구적 사회구조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에 의해 급격하게 변화한 사회구조 속에서 현대사회는 아노미 현상과 같은 혼란한 현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특히 각국이 자신의 국가적 이익만을 위해 노력할 때 발생하게 되는 국가 간 갈등의 문제는 지구촌 사회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의 강구는 전 세계가 현시대에 당면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지구촌 사회에서 나타나게 될 다양한 형태의 국가 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민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인진(2008)은 ‘세계시민교육이란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으로 인권존중, 세계평화, 다문화이해, 세계적 문제의 이해와 해결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라 정의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세계시민주의란 ‘모든 인간은 세계시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상으로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한 민족 또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소속감은 인류전체에 있어야 하고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실천 강령을 따르는 생각을 의미한다(김지현·손철성 2009).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시민 교육은 무한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세계화 시대에서 자국의 경제적 실익이라는 관점에서 실행상의 딜레마를 겪고 있다. 김옥순(2009)은 이러한 상황을 ‘국가 간 협력’과 ‘국가 간 경쟁’의 상반된 개념 속에서 나타나는 교육개혁 정책의 딜레마 현상이라 설명하면서,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한국 사회는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세계시민교육을 아동에게 실시하고자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김용찬(2011)도 비록 비체계적이기는 하나 세계화시대의 시민교육으로 국가 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평화교육이 도덕 과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사회 과목에서도 개인·집단 간의 갈등해결을 주제로 하는 단원이나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는 단원, 국제사회의 현실과 규범을 내용으로 하는 단원과 국제이해교육 관련 단원에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는 세계시민교육의 기초가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는 세계시민 교육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다. 세계시민교육이 평화공존속의 이상적인 세계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너무나도 현실과 유리된 세계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불가능하다(허영식 2004)는 주장과 자신이 생존하고 있는 지역적인 규범 속에 생활하는 인간에게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도덕적 규범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장준호 2005)들은 세계시민 교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곧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가장 비효율적으로 여겨지지만 그래도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장현숙(2011)은 세계시민교육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계시민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세계화시대의 국

제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이 학교현장에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와 주장들은 티에(Tye 1997)가 미래의 통합된 지구촌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강조한 것과 철학적 기반을 같이하는 주장들이다.

전대미문의 세계화 현상을 맞이하여 한국 사회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교육실천 앞에 인식론적 전환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아픔을 지닌 한국인에게 저항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꾸준히 강조되어 온 민족교육의 틀을 벗어나 세계시민교육이라는 틀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은 교육의 주체와 객체들에게 많은 혼란과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윤인진(2009)은 이러한 혼란에 의해 한국의 세계시민교육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민족과 국민정체성과 세계시민 정체성과 충돌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2.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과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의식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논의에 앞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형성된 시민의식의 실태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반면 시민의식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 실태조사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시민의식 실태 조사가 있다. 당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시민의식으로서의 다양성 존중 의식수준은 각 연령집단에서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김태준·김안나 외 2003).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의식 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2007년에 실시한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조사결과 한국청소년들은 시민관련 지식수준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시민의식 관련 태도나 참여수준의 점수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김태준·설규주 2011)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 청소년의 시민의식

은 국제 평균 수준보다 낮았다.

한국청소년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낮은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사회의 낮은 시민의식 수준의 원인을 민족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둔 국가시민성 중심의 교육에서 찾기도 하며(강순원 2010), 일부의 학자들은 교사들의 낮은 시민의식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민족중심의 교육을 실시한 한국교육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리고 학교교육을 통하여 교사와 청소년들은 필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들은 설득력이 지닌다. 실제로 김태준 등(2011)의 연구에서도 지적되듯이 한국 교사들은 시민교육의 목적을 비판적·독립적 사고의 증진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의 참여를 증진이라 보고 있지 않았으며, 인종주의 혹은 외국인 혐오주의 극복이 시민교육이 목적이라 인식하는 비율이 국제평균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유은영과 남상준(2011)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의 초등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시민의식을 비교 연구한 결과 한국 초등교사의 준법실태 인식은 일본에 비해 매우 낮았고, 권리실태 인식과 권리의식에서도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시민의식이 세계시민의식으로서의 의식과 태도 확장을 위한 기초라 할 때 낮은 수준의 시민의식은 낮은 수준의 세계시민의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청소년들의 지닌 세계시민의식 수준에 대한 연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강운선과 이명강(2009)은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세계시민성을 비교한 결과 중국의 대학생들의 세계시민성 수준이 한국 대학생의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세계시민의식 수준이 낮은 것은 비단 대학생뿐만이 아니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의식 실태조사는 한국 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이 낮다고 하는 사회적 사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갖게 한다. 신혜

영(2006)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32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들은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나 관심부분, 그리고 세계지향성 부분에서 점수가 낮은 것을 확인했다.

한국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민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명제 아래 한국 정부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시민의식교육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정부는 제 7차 도덕과 교육과정 개편에서 도덕교육의 목표를 ‘국가와 민족의 성원으로서 그리고 나아가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세계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교육부 1998). 또한 2007년 교육과학부는 개정된 교육과정 총론 목표영역 중 고등학교 학교급별 목표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키운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09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인간상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제시하면서(<http://cutis.mest.go.kr>, 2009/12/20) 시민의식교육을 넘어선 세계시민의식 교육으로 교육목표를 확장하고 있다.

### 3. 세계시민의식교육과 국제교류 활동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세계시민의식 교육의 점진적 확대가 시도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회교육에서는 세계시민의식 교육이 다양한 사회교육기관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교육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대표적 기관으로는 UNICEF와 굿네이버스, 그리고 월드비전이 있다. UNICEF 한국위원회는 몽골에서 진행되는 나무심기 국제교류 봉사활동과 국내에서 실시하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한 아우인형 입양, 걷기대회 등 후원금 모으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촌시민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의식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또한 UNICEF와 같은 아동 대상의 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구촌 이웃과 함께 걸어요, 희망편지쓰기, 사랑의 굽기 운동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월드비전은 지구밖 행군 단과 학교과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지구마을 구성원으로서 역할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행복한 지구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UNICEF와 굿네이버스 등의 아동관련 사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세계시민교육은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크게 네 개의 범주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아동인권교육, 둘째, 세계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교육, 셋째, 지구촌 가족과 함께하는 나눔의 실천 모금운동을 통한 교육, 그리고 국제교류활동이다. 이중 국제교류활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외국문화에 직접 노출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는 최근 들어 증가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도 확인된다.

2010년 현재 청소년국제교류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중앙 행정부서로는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가 있다. 이들 행정부서를 통해 2010년 현재 약 7,000명의 청소년들이 해외로 파견되어 외국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위한 경비로 약 81억원의 국고가 지원되었다(윤철경·이민희 외 2011). 중앙 행정부서 이외에도 각 지방행정부서를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5월 현재 우리나라 16개 시·도(세종특별자치시 제외)와 209개 시·군·구(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9개는 체결현황 없음)는 65개국 947개 도시와 1,183건의 국제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2). 이는 2000년도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매결연 체결이 179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급격한 증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

램은 문화교류의 일부분으로 자매결연 도시 방문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노종우 2012).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통한 청소년들의 국제 교류활동의 기회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류의 사전적 정의는 ‘문화·사상 등의 조류가 서로 통합’(민중예센스 국어사전 1992)으로 상호활동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국제교류활동에서 상호간의 공평한 교류가 일어나기에는 다양한 경제적·물리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에는 상당부분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청소년을 과건하여 진행하는 활동도 국제교류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있다. 어떤 형태의 국제교류가 되었든 해외문물을 접촉하게 하는 경험은 자아정체성과 동시에 시민의식, 더욱 더 나아가 세계시민의식 함양이라는 발달과업을 달성하는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목적을 ‘지구촌 사회의 간문화적 이해를 통한 평화적·공동체적 삶을 창조하고 지구촌 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하여 공동체나 지역사회 공동체 등의 함께 하는 삶에 대한 의식과 행위를 배우고 익혀서 지구촌 및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청소년국제교류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 4. 국제교류활동이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세계화시대의 청소년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는 세계시민의식이 과연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 들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학교와는 달리 사회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였다. 이는 평가의 필

요성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 인식이 부족한 이유에서 연유할 것일 수도 있으나 사회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원칙적으로 참가자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강제적 참여에 의한 교육적 수월성을 측정하는 학교교육기관에 비해 평가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국가가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에 지원하는 예산이 증가하면서 국가지원의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평가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평가는 과거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국제교류활동에 대한 평가는 2005년 국가정책연구기관에서 처음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경험학습모델을 바탕으로 청소년교류활동의 추진체계를 6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활동기준을 제시하고 사업별 평가기준과 지표를 제시한 연구(오해섭·김진화 2005)를 시작으로 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해섭과 우영주(2006)는 서울시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교류활동 참여와 글로벌리더십간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제교류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글로벌리더십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계민(2008)은 타문화권 국가에 장기간 방문한 집단이 단기간 방문한 집단이나, 무경험 집단에 비해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을 형성하게 됨을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세계시민의식을 개인이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세계시민의식은 다문화수용성뿐만 아니라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감수성을 우선적으로 형성시켜야 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청소년의 해외체류경험이 문화간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김옥순(2008)의 연구는 이런 의미에서 세계시민의식과 관련된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소재의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를 통해, 김옥순은 해외체류경험과 문화간 감수성이라는 두 변인 간에 통계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은 세계시민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국제교류활동과 세계시민의식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초등학교 연령층의 아동은 많은 경우 연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이 고등학교 이상의 연령층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현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연령층의 아동들은 아직도 성인들의 근접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연령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국제교류프로그램에서 많은 경우 제외되기도 한다.

아동을 포함하는 국제교류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UNICEF에서 제공하는 '지구촌 몽골캠프'가 있다. 지구촌 몽골캠프는 7박 8일의 기간 동안 한국아동들은 내몽골과 러시아 등지로부터 온 아동들과 함께 어울리고 몽골아동들과 방을 사용하며 서투른 의사소통을 시도하고자 노력하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세계화에 의해 발생하는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즉 캠프 기간 동안 참가 아동들은 사전에 조직된 교육내용에 따라 환경, 나눔 등의 세계시민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주제별 활동을 수행하면서 사막화와 도시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한 몽골을 전 지구적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특히 빈곤국가 아동들에게 보내고 싶은 도시락 그리기, 재활용품을 이용한 패션쇼하기, 나무심기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아동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의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UNICEF가 진행하는 지구촌 몽골 캠프는 세계시민의식을 갖게 하는 대표적인 국제교류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들로 하여금 자신의 둘러싼 사회에 대한 호기심을 가장 많이 가지는 시기로 주변 환경과 인간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임(Hall and Lindzey 1978)을 감안할 때 UNICEF의 지구촌 몽골 캠프와 같은 국제교류프로그램의 기회는 아동들의 세계시민의식을 형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김옥순(2010)은 초등학교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국제교류프로그램이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국제교류프로그램은 저 연령층의 아동들에게 국제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 5.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소

세계시민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은 세계시민의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 나딩스(N. Noddings 2009)는 세계시민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생활이 가능하고 능숙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현행의 경제적 부정의(injustice)에 대한 의식, 지구의 오염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의식,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의식,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 등 네 가지의 비판의식을 세계시민의식의 기초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나딩스(Noddings)와 유사한 관점으로 한베이(Hanvey)는 세계시민은 첫째, 다른 이들이 자기와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둘째, 세계적인 사건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며, 셋째, 문화간의 차이성과 유사성을 통해 세계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며, 넷째, 세계는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섯째,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대안적인 행동전략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함을 지적함(신혜영 2006에서 재인용)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의 기본요소를 제시

하고 있다.

크니프(W. M. Kniep 1987)는 세계시민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의 기본요소가 명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네 가지의 영역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기본요소가 다루어져야 함을 설명한다. 그가 제시한 네 가지의 영역은 ① 인간가치와 문화 영역, ② 세계 체제의 영역, ③ 세계의 이슈와 문제 영역, ④ 세계 역사 영역이다. 그는 각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야 할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인간가치와 문화영역에서는 ① 인간의 보편적 가치, ② 다양한 가치관이 다루어져야 하며, 세계체제영역에서는 ① 경제체제, ② 세계정치체제, ③ 환경체제, ④ 기술체제가 다루어져야 하고, 세계의 이슈와 문제영역에서는 ① 평화와 안전문제, ② 발전의 문제, ③ 환경문제, ④ 인권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계 역사 영역에서는 세계 역사를 통해 국가 간의 긴밀한 관련성과 국가 간의 문화 접촉과 차용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르케(Birke)는 세계시민의식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의식, 다양성의식, 타인에 대한 존중심이라는 시민의식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시민이란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 숙고하고 다른 사람들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정의아래 그는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지구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망하는 능력, 간문화적 관점과 의사소통능력이 세계시민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중요 요소라 보고 있다(강운선 2009에서 재인용). 국제적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사회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생각이다. 김경은과 이나리(2012) 또한 사회과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문제에 대한 학습자의 민감성 함양을 증진시키는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적인 이슈나 사건들을 학습자가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학습방법들을 제

안하고 있다.

옥스팜(Oxfam 2006)은 세계시민교육은 개인이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는데 필요한 지식, 가치와 태도, 기술로 분류하여 세계시민의식의 요소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 다양성의 존중, 세계 각국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 사회부정에 대한 인식, 지역과 전 지구적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소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각 영역에서의 세계시민의식을 살펴보았다. 재구성한 다섯 가지의 영역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식, 다양성의 가치존중,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그리고 세계지향성이다. 각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내용은 연구 방법의 <표3>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에서 자세히 제시될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유니세프 지구촌 몽골 캠프에 참가한 초중학생 80명, 수도권 일반 초중학생 125명 등 총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2 유니세프 지구촌 몽골캠프는 환경과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성된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프로그램이다. 캠프 참가자의 설문은 연구자가 직접 캠프에 참여하여 몽골현지에서 캠프 5일차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해 작성하도록 지도하였다. 한국어 읽기가 서툰 학생, 성의가 부족한 학생들도 연구자와 개별 시간을 가져 재작성 되었으므로 80부 중에 사용하지 못하는 설문은 생겨나지 않았다. 그러나 캠프에 참가하지 않은 응답자의 설문 125부 중에는 완성되지 못했거나 동일한 응답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설

문지가 발견되어서 5부를 폐기하였고, 결국 최종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총 200부가 되었다.

이들의 성별, 학교급, 외국 여행 경험, 외국체류 경험 등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연구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구분	캠프 참가 청소년		일반 청소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	43	53.8	51	42.5
	여	37	46.3	69	57.5
	합계	80	100.0	120	100.0
학교급별	초등학생	29	36.3	49	40.8
	중학생	51	63.8	71	59.2
	합계	80	100.0	120	100.0
외국에 가본 경험	있다	64	80.0	35	29.2
	없다	16	20.0	85	70.8
	합계	80	100.0	120	100.0
1년 이상 외국에 살아본 경험	있다	11	13.8	6	5.0
	없다	69	86.3	114	95.0
	합계	80	100.0	120	100.0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김신일 외(1995)에 의해 개발된 ‘국제이해교육 실태와 비교연구’에서 사용된 ‘국제문제 및 외국에 대한 태도조사지’의 설문을 바탕으로 신혜영(2006)이 개발한 ‘세계시민의식 실태조사지’를 사용하였다. 조사지는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질문과 세계시민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다섯 가지 영역 -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관,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문제해결에 대한 가치관, 세계지향성 -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표2>는 각 영역별 문항수와 신뢰도 분석결과 산출된 Chronbach's  $\alpha$ 값이다.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세계시민의식 영역	문항수	신뢰도
인간의 보편적 가치	5	0.683
다양성에 대한 가치관	4	0.596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6	0.604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5	0.586
세계지향성	5	0.573

각 영역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로 측정되었다.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라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환산되었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별 세계시민의식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표3>은 연구대상의 세계시민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된 각 영역별 문항의 내용이다.

<표 3>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세계시민의식 영역	문항구성
인간의 보편적 가치	1. 지구의 환경오염 책임소재 2. 아프리카 기아문제에 공감 여부 3. 기아에 대한 지원의사 4. 이타성 5. 세계평화를 위한 협력
다양성에 대한 가치관	6. 선진국과 후진국에 대한 관심 차이 7.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의 문화에 대한 존중 여부 8. 행동방식이나 문화 차이에 대한 불편 정도 9. 외국의 풍습과 전통에 대해 알고자 하는 정도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10. 환경에 대한 관심1 11. 환경에 대한 관심2 12.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 13. 세계평화에 대한 관심 14.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 15. 국제경제에 대한 관심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16. 분리수거 실천 여부 17.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노력 18. 삼푸 사용여부

	19. 인권보호기구에 대한 관심 20. 세계 평화에 대한 참여의지
세계지향성	21. 지구환경과 국익 중 우선시 하는 것 22. 다른나라 사람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23. 가격경쟁력과 국내 농축산업 보호 중 우선시 하는 것. 24. 지구촌 의식 정도 25. 국익보다 인류의 이익이 중요함을 아동들에게 교육할 필요에 대한 의견

문항 6, 7, 8, 18, 21, 22는 역코딩 질문으로 구성

### 3. 조사절차

캠프 참여청소년 80명은 2012년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유니세프 지구촌 몽골캠프기간 중 5일차인 7월 30일 오후에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몽골 나이남달 국제캠프장에서 설문하였고, 일반 청소년은 2012년 8월 25일부터 31일에 걸쳐 초등 5, 6학년 각 1개 반 중등 1, 2학년 각 1개 반 등 125명을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각 학교에서 설문하였다. 연구분석에는 불가피한 이유로 폐기한 설문 5부를 제외하고 200부를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자료는 PASW 18.0으로 분석하였다. 설문문항의 신뢰도 계수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지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각 항목에 응답하도록 제시되었기 때문에 응답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독립표본 t-검정으로 캠프 참가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각각 문항의 영역별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 IV. 연구결과

지구촌 국제캠프에 참가한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에 대해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별 세계시민의식의 차이

#### 1) 세계시민의식의 성별 차이

인구학적 변인별로 세계시민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세계시민의식의 5개 영역 중에서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영역만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자 청소년의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점수는 3.7414로서 남자청소년 3.4938보다 .2475 높았다.

<표 4> 세계시민의식의 성차

세계시민의식 영역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값	p
인간의보편적가치	남	94	4.0766	.58003	-.991	.323
	여	106	4.1585	.58666		
다양성에대한가치존중	남	94	3.4938	.79793	-2.447	.015
	여	106	3.7414	.63088		
세계문제에대한흥미와관심	남	94	3.4486	.83781	.553	.581
	여	106	3.3742	1.03786		
문제해결에대한참여의지	남	94	3.4596	.66677	-.676	.500
	여	106	3.5189	.57356		
세계지향성	남	94	3.6362	.61659	-1.147	.253
	여	106	3.7302	.54304		

#### 2) 세계시민의식의 학교급별 차이

학교급별 세계시민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세계시민의식의 5개 영역 중에서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영역이  $p < .05$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초등학생의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점수가 3.6090로 중학생은 3.2814보다 .3275 높았다. 세계지향성 영역에서도  $p < .1$  수준에서 초등학생이 3.7795로 중학생 3.6262보다 .1542 높았다.

<표 5> 세계시민의식의 교급차

세계시민의식 영역	학교급	N	평균	표준편차	t값	p
인간의보편적가치	초	78	4.1692	.54993	.954	.341
	중	122	4.0885	.60415		
다양성에대한가치존중	초	78	3.6923	.69777	1.053	.294
	중	122	3.5820	.73847		
세계문제에대한흥미와 관심	초	78	3.6090	1.09532	2.413	.017
	중	122	3.2814	.81905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초	78	3.5564	.59753	1.198	.232
	중	122	3.4492	.63000		
세계지향성	초	78	3.7795	.56347	1.836	.068
	중	122	3.6262	.58349		

### 3) 외국에 가본 경험에 따른 세계시민의식의 차이

외국에 가본 경험 유무에 따른 세계시민의식 차이는  $p < .1$ 수준에서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세계지향성 등 3개 영역에서 나타났다. 3개 영역 모두 외국에 가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 점수는 외국에 가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7138,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3.5380이었고,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는 외국에 가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5717,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3.4119였고, 세계지향성은 외국에 가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7576,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3.6158이었다.

<표 6>외국에 가본 경험에 따른 세계시민의식의 차이

세계시민의식 영역	외국에 가본 경험	N	평균	표준편차	t값	p
인간의 보편적 가치	있다	99	4.1717	.59454	1.243	.215
	없다	101	4.0693	.57092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	있다	99	3.7138	.75594	1.728	.086
	없다	101	3.5380	.68196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있다	99	3.4747	.81662	.969	.334
	없다	101	3.3449	1.06047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있다	99	3.5717	.63246	1.839	.067
	없다	101	3.4119	.59654		
세계지향성	있다	99	3.7576	.61959	1.736	.084
	없다	101	3.6158	.53042		

### 4)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에 따른 세계시민의식 차이

외국에 1년 이상 살아본 경험 유무에 따른 세계시민의식 차이는  $p < .1$ 수준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영역에서 나타났다. 외국에 1년 이상 살아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7412으로 경험이 없는 청소년 3.4678보다 높았다.

<표 7> 외국에서 1년 이상 살아본 경험에 따른 세계시민의식 차이

세계시민의식 영역	외국에 살아본 경험	N	평균	표준편차	t값	p
인간의 보편적 가치	있다	17	4.1882	.49229	.503	.615
	없다	183	4.1137	.59205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	있다	17	3.8676	.65023	1.450	.149
	없다	183	3.6025	.72702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있다	17	3.4118	.80605	.012	.991
	없다	183	3.4089	.96151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있다	17	3.7412	.57343	1.753	.081
	없다	183	3.4678	.61858		
세계지향성	있다	17	3.8471	.59804	1.200	.232
	없다	183	3.6710	.57683		

## 2. 캠프 참가 여부에 따른 세계시민의식 차이

지구촌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세계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인간의 보편적 가치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캠프 참가 청소년 청소년이든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든 가장 높은 평균점수 - 참가 청소년 4.2700, 일반 청소년 4.0200 - 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참가 청소년의 점수가 .2500 높았다.

### 2)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에 대해서 캠프 참가 청소년은 3.8750, 일반 청소년은 3.458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참가 청소년의 점수가 .41667 높았다.

### 3)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에 대해서 캠프 참가 청소년은 3.6271, 일반 청소년은 3.26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참가 청소년의 점수가 .36319 높았다.

### 4)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에 대해서 캠프 참가 청소년은 3.7650, 일반 청소년은 3.308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참가 청소년의 점수가 .45667 높았다.

### 5) 세계지향성

세계지향성에 대해서 캠프 참가 청소년은 3.9000, 일반 청소년은 3.543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참가 청소년의 점수가 .35667 높았다.

<표 8> 캠프 참가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차이

세계시민의식 영역	캠프 참가 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값	p
인간의 보편적 가치	참가	80	4.2700	.52202	3.029	.003
	일반	120	4.0200	.60274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	참가	80	3.8750	.68321	4.152	.000
	일반	120	3.4583	.70322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참가	80	3.6271	.70723	2.697	.008
	일반	120	3.2639	1.05643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참가	80	3.7650	.55005	5.478	.000
	일반	120	3.3083	.59516		
세계지향성	참가	80	3.9000	.62683	4.267	.000
	일반	120	3.5433	.49886		

## V. 결론 및 논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과를 고찰하고자 2012 유니세프 지구촌 몽골캠프 참여청소년 80명과 일반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세계지향성 등 5개 영역의 세계시민의식을 비교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별로 세계시민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 영역에서만 여자 청소년이 높은 세계시민의식을 나타내었다. 선진국과 후진국에 대한 관심 차이,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의 문화에 대한 존중 여부, 행동방식이나 문화 차이에 대한 불편 정도, 외국의 풍습과 전통에 대해 알고자 하는 정도 등을 알아보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 영역에서 여자 청소년이 높은 세계시민의식을 나타내었다. 이는 초등학생의 국제이해교육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세계이해와 관련된 점수가 높았고 활동의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차이도 더 컸음을 밝힌 구정화(200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교급별로 세계시민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세계지향성 등 2개 영역에서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높은 세계시민의식을 나타내었다. 환경, 핵무기의 위험성, 세계평화, 국제관계, 국제경제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는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영역과 지구환경과 국익간의 상충,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권문제, 가격경쟁력과 국내 농축산업 보호간의 상충, 지구촌 의식 정도, 국익보다 인류의 이익이 중요함을 아동들에게 교육할 필요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는 '세계지향성'의 2개 영역에서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은 세계시민의식을 나타낸 것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자연스레 관련 지식이 더 축적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역의 세계시민의식은 하향된 것임을 드러낸다. 이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가치나 의식에 대한 탐구 보다는 학력 위주의 학습이 진행된 결과이거나, 중학생의 관심 폭이 초등학생 보다 더 자신의 일상을 중심으로 줄어든 결과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전반적으로 성인으로 갈수록 비판의식 및 다양성 존중의식 등 시민의식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자기 입장이 관여되어 있거나 세대간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측정 영역에서는 성인의 의식이 더 낮게 나타났다. 김태준과 설규주 등의(2011) 연구 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 이러한 경향이 고등학교, 성인기 등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외국에 가본 경험에 따른 세계시민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세계지향성 등 3개 영역에서 외국에 가본 청소년이 높은 세계시민의식을 나타내었고, 외국에서 1년 이상 살아본 경험에 따른 세계시민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영역에서만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높은 세계시민의식을 나타내었다. 김태준(2011)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의식이 국제수준에 못 미침을 지적한 바 있는데, 단순히 외국에 가본 경험 유무에 따라서만도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 점수가 차이를 나타낸 본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영역은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삼푸 안

쓰기, 인권보호기구에 대한 관심, 세계 평화에 대한 참여의지 등으로 구성되어 가장 실천과 깊이 관련된 문항이어서 외국 방문 경험이나 거주경험이 세계시민의식의 일상적 실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김영화(1998)는 우리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해가는데 적합한 소양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의식과 태도 면에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우리나라 또는 우리 국민이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경우에는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나 세계의 발전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자국우선주의 경향이 강하여 세계지향적 사고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지향성이 단순한 외국체류 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난 것은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결과이다.

넷째, 주요연구문제인 캠프 참가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세계지향성 등 5개 영역 전체에서 캠프 참가 청소년들이 높은 세계시민의식을 나타내었다. 이 캠프는 청소년에게 세계시민의식을 심어주고자 준비된 일개 국제교류활동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해 모든 국제교류활동이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화는 어려우나, 전 영역에 걸쳐 극명하게 나타난 점수 차이를 확인하였으므로 보다 폭넓게 많은 청소년들에게 유사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국제교류의 기회가 확장되어야 한다. 국내 청소년을 파견하는 국제교류는 고비용 활동이다. 기본적으로 이동에 드는 비용과 통역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높으므로 자칫하면 일부계층에게만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 영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국제교류가 사회통합을 추구하면서 저소득층 청소년, 장애 청소년,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 등에게 우대적 차별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차원의 정책과 민간 후원을 통한 사업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비용효율적인 국제교류 방안의 모색하여 해외 청소년 초청활동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별 국내 청소년의 가정에서 민박을 하는 방법 통해 숙식비를 낮추고, 청소년 시설에서 함께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시민의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공교육의 정규교과 내에서 세계시민의식 관련 시수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국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인적자원개발 관점을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 교육 차원에서도 청소년 관련 단체, 시설 등이 국제교류활동을 비롯한 세계시민의식 교육에 진력해야 한다. 정규교육은 모든 청소년에게 세계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양적으로 기여하고, 비정규교육은 국제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 차별화된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국제교류의 활성화와 세계시민의식함양을 위해서 학교, 지자체,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 등이 협력해야 한다. 각 지자체나 학교의 자매 시도 및 자매 학교를 활용하여 국제교류 기회를 만들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많은 민간 기관이 이미 연구, 개발, 실행하고 있는 세계시민의식활동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 < 참고문헌 >

- 강순원, 2010, “다문화사회 세계시민교육의 평생교육적 전망”, 『평생교육학연구』, Vol. 16, No. 2, pp. 69-91.
- 강운선·이명강, 2009,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세계시민성 비교연구”, 『사회과교육』, Vol. 48, No. 3, pp. 175-185.
- 교육부, 1998, 『도덕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구정화, 2008, “국제이해교육이 초등학생의 세계이해 태도에 미치는 효과-유네스코의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CAP)’ 활동 적용을 통해”, 『시민교육연구』, Vol. 40, No. 2, pp. 31-51.
- 김경은·이나라, 2012, “사회과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안”, 『교과교육학연구』, Vol. 16, No. 1, pp. 231-256.
- 김신일·김영화·김현덕, 1995, 『국제이해교육의 실태와 국제비교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김영화, 1998, “한국 초·중등학생의 세계 시민 자질-의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Vol. 6, No. 2, pp. 25-46.
- 김옥순, 2008, “해외체류경험과 외국어 사용능력에 따른 문화감수성 수준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Vol. 5, No. 1 pp. 45-67
- \_\_\_\_\_, 2010, “아동의 세계시민의식 형성에 미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청소년문화포럼』, Vol. 26, pp. 8-28.
- 김용찬, 2011, “세계화시대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평화교육강화방안”, 『교육논총』, Vol. 31, No. 2, pp. 35-46.
- 김지현·손철성, 2009, “세계시민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시대와 철학』, Vol. 17, No. 1, pp. 93-126.
- 김태준·김안나·김남희·이병준·한준, 2003,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 측정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3-15-1.
- \_\_\_\_\_, 2011, “세계청소년의 시민의식과 우리나라 시민교육의 시

사점”, 『한국HRD연구』, Vol. 6, No 2, pp. 25-41.

넬 노딩(Nell Noddings) 저, 연세기독교교육학포럼 역, 2009,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 교육』, 서울: 학이당

노종우, 2012,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신혜영, 2006,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세계시민의식 실태분석-가치와 태도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혜섭·김진화, 2005, “국제청소년교류활동평가체계 및 모형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5-R06.

\_\_\_\_\_, 2006, “국제교류활동 참여와 청소년의 글로벌리더십 함양”, 『숙명리더십연구』, Vol. 4, No. 2, pp. 54-75.

유은영·남상준, 2011, “한·일 초등교사의 시민의식 비교연구”, 『초등교과교육연구』, Vol. 13, pp. 28-49.

윤인진, 2008, “민족교육,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민족연구』, Vol. 50, pp. 4-23.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2011, “청소년국제교류정책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연구”, 청소년개발원연구보고 11-R-12.3.

장현숙, 2011, 교육경험과 접촉경험이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감수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행정안전부, 201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현황, 서울: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

Hall, Calvin S and Gardner Lindzey, 1978, *Theory of Personality*,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Durkheim, Émile, 1997, *The Division of Labour in Society*, New York: Free Press.

Friedman, Thomas L., 2007, *The World Is Flat: A Brief History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Kniep, Willard M., 1987, *Next Steps in Global Education: A Handbook for Curriculum Development*, New York: The American Forum. Inc.

Oxfam, 2006,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s*, London: Oxfam.

Tye, K.A., 1997, "A Nationalism, Globalism, and Education", 『학생생활연구소』, 순천향대학교.

## The Effects of Youth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on Global Citizenship

Shin, In-soon  
(Suwon Science College)  
Kim, Ok-soon  
(Suwon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for children on global citizenship. The study compares two groups of children. One of the groups, which consist of 80 children participating in an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of UNICEF, was named as the 'Global Camp in Mongol'. The other group, which has 120 children, did not have any types of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Global citizenship has been measured in five domains: universal value of human, respect of diversity, interests in global issues, intention to solve international dispute and orientation to globalism by using a questionnaire.

Researchers found many interesting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the data. The first result is that female children in both groups displayed higher scores in the domain of respect of diversity. Seco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had better scores in the domain of interests in global issues and orientation to globalism than middle school children. Comparing the two groups, it has been found that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attained higher scores in the domain of respect of diversity, intention to solve international dispute and orientation to globalism. It was also found that children who had been abroad more than one year showed higher scores in the domain of intention to solve international dispute than compared to others. Lastly, it has been discovered that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showed better scores in every domain than those children who did not participat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researchers concluded that more opportunities should be provided to children in order to facilitate the formation of global citizenship.

**Keywords :** International Exchange, Global Citizenship, Diversity